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623분만에…메시의 골이 터졌다

보스니아전 8년만에 월드컵 본선 골…메시 “승리해 더 기뻐”

우승·탈락·준우승·탈락…롤러코스터 프랑스, 온두라스 완파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골잡이들이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를 앞세워 조국에 2014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 승리를 안겼다.

E조 강호 스위스도 에콰도르에 ‘역전 쇼’를 펼치며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아르헨티나는 1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메시의 결승골을 앞세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2-1로 힘겹게 꺾었다.

월드컵 본선에서만 서면 작아지던 메시가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골잡이 노릇을 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앞서던 후반 20분 곤살로 이과인(나폴리)과 일대일 패스를 주고받으며 문전으로 침투했고 수비수 2명을 따돌리는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메시의 발을 떠난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 그물로 빨려 들어갔다.

이 골로 메시는 월드컵 본선 통산 2호 골을 기록했다. 메시는 2006년, 2010년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지만 골은 2006년 독일 대회 조별리그 2차전 세르비아-몬테네그로전에서 넣은 게 전부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선전을 펼치고도 월드컵 본선 첫 출전에 첫 골을 올린 데 만족해야 했다.

‘아트 사커’ 프랑스는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벌어진 E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온두라스를 3-0으로 완파했다.

최전방 공격수인 벤제마가 2골을 넣고 상대 자책골까지 유도하며 맹활약했다.

벤제마는 이날 전반 45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 3분에는 그가 때린 논스톱 슈팅이 온두라스 골키퍼 노엘 바야다레스(올림피아)에게 맞고 골로 연결되는 행운을 잡았다. 벤제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반 27분 코너킥 이후 흘러나온 볼을 잡아 슈팅으로 연결, 골 잔치에 마침표를 찍었다.

1998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서 대회마다 큰 기복을 보여온 프랑스는 첫 경기에서 승리, 4년 전 남아공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굴욕을 만회할 디딤돌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승점 3(골 득실 +3)으로 조 1위에 올랐다. 또 다른 E조 경기에서는 스위스가 남미의 복병 에콰도르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다.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하리스 세페로비치(레알 소시에다드)의 골이 스위스에 승점 3을 안겼다.

요시프 드르미치(레버쿠젠)의 슛이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고 제르단 샤치리(바이에른 뮌헨)의 골이 골 그물 바깥을 때리는 등 아슬아슬하게 골을 놓친 스위스는 후반 추가시간 로드리게스의 크로스를 세페로비치가 왼발로 마무리하며 끝내 결승골을 뽑았다. /연합뉴스

무승부 없다 ‘화끈한 월드컵’

11경기 모두 승패 갈려…월드컵 80년사 첫 기록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선 나란히 웃을 수 없다.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16일(한국시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11경기가 끝난 가운데 이제까지 치러진 모든 경기에서 승부가 갈렸다. 1930년 월드컵이 시작한 이래 개막 후 11경기 연속 무승부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포츠 데이터업체 ‘인포스트라다 스포츠’에 따르면 이전 기록은 2회 월드컵인 1934년 이탈리아 대회 때 9경기였다. 당시 월드컵은 16개 팀이 단판 승부를 펼쳐 8강에 진출하는 방식이었다. 연장전까지 치르고 무승부가 나오면 재경기를 치렀다. 이탈리아 월드컵에선 1회전에서 모두 승부가 갈렸고 8강 첫 경기에서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2-1로 물리치며 9경기 연속 ‘노(no)’ 무승부 행진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어진 8강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1-1로 비기면서 기록이 9경기에서 중단됐다.

80년이 흘러 브라질 월드컵 9번째 경기인 E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위스가 에콰도르를 2-1로 물리치며 타이기록이 작성됐다.

후반 45분까지 양팀이 1-1로 맞서면서 신기록을 놓칠 조짐도 보였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하리스 세페로비치(레알 소시에다드)가 스위스에 결승 골을 안겨 기존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어진 경기에서 프랑스가 온두라스를 물리치며 신기록이 수립됐고 아르헨티나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제압하면서 기록은 11경기로 연장됐다.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번 대회 다득점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술이 약한 팀은 무승부를 목표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한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선 약팀도 꼭 수비적으로 나서지 않을 뿐 아니라 강팀 역시 다양한 전술로 약팀의 수비 전략을 무위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인구인 브라주카의 구질이 골키퍼가 막기 힘들다는 점도 무승부가 없는 이유가 된다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김대길 KBS N 해설위원은 “예전 같으면 각팀이 비슷하게 4백을 쓰고 4-2-3-1 전술을 썼는데 이번에는 4백을 쓰면서 3백, 5백도 같이 쓰는 팀이 있고 4-3-3, 5-3-2 등을 쓰는 등 전술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약팀이라고 비기려고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강팀도 다양한 전술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빈 공간을 찾아내는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첫 비디오 판독골 16일 프랑스와 온두라스 경기중 전광판을 통해 프랑스 벤제마의 골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 첫 골 판독기가 가동된 결과 온두라스 자책골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 월드컵 이모저모

‘부상’ 獨 슈바인슈타이거, 헬기 수송 작전

“스타일은 포기 못해” 호날두, 인터뷰 지각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수비수 세아드 콜라시나치(21)가 1월드컵 사상 가장 이른 자책골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갖게 됐다. 콜라시나치는 16일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자책골을 넣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띄운 프리킥을 상대 선수들 사이에서 골라내려다 공을 잘못 건드려 자국 골망에 흘려보내고 말았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팀에 첫 실점을 안긴 순간이었다. 콜라시나치가 자책골을 범한 시간은 정확히 2분8초로 2006독일 월드컵에서 파라과이의 카를로스 가마라가 기록한 2분26초를 18초 앞섰다.

○…16일 프랑스와 온두라스의 E조 조별리그 1차전이 펼쳐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 자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 속에 투지를 불태워야 할 순간 국가가 연주가 되지 않으면서 양국 선수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에 나섰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날 경기가 프랑스의 3-0 승리로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오디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2006 독일 월드컵 한국과 토고와의 경기에서는 애국가가 두 차례나 울려 퍼지는 해프닝이 있었다. 뒤늦게 눈치챈 조직위원회 측이 급히 애국가를 끄고 토고 국가를 연주했지만 이미 애국가는 후렴구까지 연주된 뒤였다.

○…‘전차군단’ 독일이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최근 무릎 부상에 시달린 미드필더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바이에른 뮌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헬리콥터 수송 작전’을 벌였다. AFP 통신은 브라질 현지 언론을 인용, 슈바인슈타이거가 15일 독일 대표팀의 베이스캠프에서 약 60㎞ 떨어진 에우나폴리스의 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의 도로가 제대로 포장돼 있지 않은 탓에 슈바인슈타이거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했고, 곧바로 사우바도르에서 첫 경기를 준비하는 팀의 훈련에 합류했다.

○…포르투갈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슈퍼모델이기도 했다. 호날두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 무려 한 시간이나 지각했다.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은 3시30분이었으나 호날두는 4시30분이 돼서야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훈련복이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평상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두 귀에는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 귀고리가 있었고 왁스를 잔뜩 사용한 곱슬머리는 한 올 한 올 똑바로 섬세하게 빗질돼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취재진의 ‘왜 늦었느냐’는 물음에 호날두는 “내가 늦었나.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기자는 없었다. 질의응답에도 열과 성을 다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연합뉴스